

'부안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 원위치 복원

'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 보존처리·복원사업 완료... 원형 복원 토대로 전통문화 계승 기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4일 '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 원위치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원을 완료한 돌오리상은 동문안 당산 집대의 정상부에 놓여 있던 것으로 2003년 2월 도난당한 뒤 문화재청 사법단속반에 의해 회수되어 2019년 3월 3일 부안군으로 반환됐다.



부안군은 14일 '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 원위치 복원'을 완료했다.

부안군은 2019년 8월 7일~12월 26일까지 문화재청의 승인에 의해 '돌오리상 보존처리 및 원위치 복원 공사시행계획' 수립 및 과학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2021년 4월 2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 보존처리 및 원위치 복원' 현상변경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2021년 7월부터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의 보존처리와 원위치 복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14일 원위치 복원을 완료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의 중심지에 세워진 동문안 당산은 조선 19대 국왕 숙종때인 1,6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평가되는 당산은 300여년간 마을 사람들의 수호신으로서 당산제와 함께 마을 지킴이의 가시적인 실체이다. 당산 형 복원을 토대로 전통문화 계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문화재야행' 과거·현재 넘나드는 색다른 추억 선사

문화유산 활용 8가지 야간형 테마 주제 30여가지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진행

군산민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야간형 문화향유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은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이 지난 9~11일, 3일간에 걸쳐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현장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이 지난 9~11일, 3일간에 걸쳐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현장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은 문화유산 향유사업으로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밀집된 군산 내 항 및 일도심 일원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8가지 야간형 테마를 주제로 30여가지의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지역예술인들이 직접 공연하는 등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막식·개막공연 생략, 공연 프로그램 무관중 생중계 운영, 체험프로그램 온라인 전환 등 대면프로그램의 비중을 축소하고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행사를 진행했다.

'야행맨이 간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내가 보고 싶은 문화재와 프로그램을 행사장에 직접 가지 않고 야행맨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하여 즐길 수 있어서 색다른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다.

차왕군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군산문화재야행을 통하여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에 작은 위트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한편 지난 11일까지 치러진 현장 프로그램 이외에도 '군산문화재야행 N행시 대회', '내가

만든 문화재교구 뽐내기' 등의 일부 온라인 프로그램은 오는 17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문화재야행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공연영상, 문화재해설 및 VR·AR체험등은 상시 체험이 가능하다.

/군산=남현봉 기자

새만금개발청,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2차 공개구입 나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전시·소장자료 확보를 위해 2021년 소장품 2차 공개구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부안 새만금방조제 초입지에 위치하며, 새만금과 간척의 역사·기술·미래가치를 재조명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2023년 개회되는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관·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장품 공개구입은 간척사와 간척 문화유산, 간척 기술 등 간척과 관련된 역사와 학술적으로 희소성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절차에 따라 구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개구입 할 소장품 대상은 간척(조사)정비, 간척관련 도서·기록물, 지도·문서류, 민속·생활용품 외에 추가로 새만금과 간척에 연관성이 있는 도자·회화류(미술품) 자료를 구입할 예정이다.

구입된 소장품은 소장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출처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는 자료는 구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구입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mangeu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영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립추진 TF 팀장은 "국내 유일의 간척전문박물관에 전시될 소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면서 "공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물관 자료 확보를 위해 구입과 기증·기탁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삼 기자

원주향토예술문화회관 온라인 기획공연

원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기획한 네 번째 무대가 오는 29일 19시 무대에 오른다.

국립전주박물관, 개그우먼 팽현숙 초청 명사특강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10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명사특강 팽현숙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작은 생각이 만들어낸 큰 변화'를 10월 2일 오후 3시 전주 박물관 강당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은 무료이며, 오는 24일~29일까지 전주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다시보기' 온라인 강연도 함께 운영한다. 10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주 박물관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화체험실'과 전주 박물관 유튜브에 강연 영상이 게시된다.

이번 명사특강은 JTBC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토크 퀴즈는 매력을 선보여 사랑받은 개그우먼 팽현숙 씨가 강사로 초청돼 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낸다. 작은 생각으로 얻은 아이디어를 통해 방송활동과 사업에서 성공 신화를 이룩한 그녀만의 노하우를 전하고, 실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도전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은 무료이며, 오는 24일~29일까지 전주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다시보기' 온라인 강연도 함께 운영한다. 10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주 박물관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화체험실'과 전주 박물관 유튜브에 강연 영상이 게시된다.

홍진근 관장은 "조그마한 생각이 더 나아가 문화적 가치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강연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쳤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맥스오브소울의 '맥스오브소울 힘쇼'가 28일 오후 7시에 선보인다. 두 공연 모두 무관중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회관 유튜브 채널에서 관람 할 수 있다.

한편 맥스오브소울의 '맥스오브소울 힘쇼'가 28일 오후 7시에 선보인다. 두 공연 모두 무관중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회관 유튜브 채널에서 관람 할 수 있다.

한편 맥스오브소울의 '맥스오브소울 힘쇼'가 28일 오후 7시에 선보인다. 두 공연 모두 무관중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회관 유튜브 채널에서 관람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감성여행도시 완주 디카시 공모전

10월 8일~11월 8일까지 완주 매력 담긴 사진·창작시 작품 제출

"가을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감성여행 도시 완주를 사진과 시(詩)로 표현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법정 문화도시'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올해와 내년도 완주방문의 해를 맞아 적지 않은 금액의 시상금을 내걸고 '감성여행도시 완주 디카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완주군은 향후 선정된 우수작품을 SNS 등 온라인 홍보와 간행물, 홍보물 제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작품들을 판넬로 제작하여 완주관광 순회 전시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신조어인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와 시(詩)의 합성어로, 창작자 본인이 촬영한 사진에 시를 덧붙인 창작물을 말한다.

완미너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완주의 소소한 매력적인 문화관광 자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며 "가을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숨겨진 보물 같은 완주로 지친 일상을 쉬어가는 감성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완주군의 역사와 문화, 축제, 관광지 등 완주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을 직접 찍고, 그 사진 속에 담긴 의미를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창작시를 덧붙여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참여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전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참여는 완주군 홈페이지와 '완주여행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작한 작품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사진 한 장당 4~10줄 이내의 시적인 문장을 표현해야 하며, 1인당 작품 3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 간이며, 이메일(habana2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주제적합성과 독창성, 홍보자료 이용가치 등의 평가기준으로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34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총 8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채만식문학관 '시민 위한 야외시화전시회' 개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채만식문학관)은 군산문인협회와 함께 '보고 읽고 느끼는 시화 속의 감동'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문학적 정서 함양과 채만식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시민을 위한 야외시화전시회'를 오는 25일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야외시화전은 군산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군산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 60여점을 문학관 앞 광장에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그 동안 접할 기회가 적었던 군산문학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 코로나19로 인해 지쳤던 마음이 치유되고 있고 지내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호 군산문인협회장은 "시화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문인들의 창작의식이 고취되고, 시민들에게는 공감각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기획된 야외 전시회를 통해 군산문학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유발하여 문학적 관심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문인협회에서 마련한 야외 시화전과 함께 문학관 2층에서는 지난 8월말부터 '교과서 속 문학의 정원을 걷다'라는 주제로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을 전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채만식문학관을 방문하여 깊어 가는 가을 일상생활 속 장기와

/군산=남현봉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 A V E R 은혜상사(주) -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